

사회방언으로서의 통신언어의 위상 재정립

신 승 용*

<목 차>

- | | |
|--------------------|-------------------|
| I. 서론 | 3.1. 한글맞춤법과 통신언어 |
| II. 통신언어의 언어적 성격 | 3.2. 일상의 구어와 통신언어 |
| III. 과장된 통신언어의 문제점 | IV. 결론 |

【요 약】

통신언어는 세대에 따른 사회방언의 하나이다. 통신언어는 지역방언이나 또는 기왕의 사회방언과 공통점도 있지만, 또한 이들과는 구별되는 통신언어만의 특성도 갖고 있다. 지금까지 순화론적인 관점에서 통신언어가 문제가 많은 것처럼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통신언어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인터넷이라는 통신매체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다. 다시 말해 통신언어 자체가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통신언어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것들은 사실 통신언어가 문제 언어이어서가 아니라 한글맞춤법 교육이나 표준어 및 표준발음 교육, 언어 예절 교육에 문제가 있었음을 말해 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 영남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수

I. 서론

1990년대 이후 인터넷 사용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온라인 상에서는 네티즌 특히, 엔세대(N←Network世代)라고 불리는 청소년들이 만들어 사용하는 언어가 통용되고 있다. 이렇게 컴퓨터 통신이나 인터넷과 같은 온라인 상에서 통용되는 언어를 흔히 통신언어라고 불러왔다!¹⁾ 이러한 통신언어는 기본적으로는 기존하는 문어나 구어를 바탕으로 하지만, 기존하는 문어나 구어에서 일탈된 언어나 기존하는 문어나 구어에서 사용되지 않는 새로운 언어도 많이 사용된다. 또한 최근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의 사용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문자메시지에 사용되는 언어는 컴퓨터 자판에 비해 문자 입력이 어려운 휴대전화 번호판의 제약으로 인해 인터넷에서 사용되던 언어와 또 다른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 그렇지만 큰 틀에서 보면 통신언어 속에 포함될 수 있다.

그 동안 통신언어는 수 없이 다루어 왔던 주제이다. 크게 보면 가치중립적인 관점에서 통신언어의 특성을 고찰한 경우²⁾, 순화론적인 관점에서 통신언어의 문제점을 다룬 경우³⁾, 국어교육적인 관점에서 통신

-
- 1) 달리 ‘채팅 언어’, ‘사이버 언어(사이버 은어)’, ‘인터넷 언어’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인터넷상의 통신언어’ 정도가 될 듯한데, 일반적으로는 간결하게 ‘통신언어(통신어)’라고 불러왔다.
 - 2) 통신언어의 실태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이정복(2000)에서 자세히 이루어진 바 있다. 김성규(2003)은 통신언어의 표기법의 특성을 문어적 표기법과의 공통점에 초점을 맞춰 고찰하였고, 구현정(2002)은 통신언어에 나타난 규범에 일탈된 다양한 형식을 포스트모더니즘적 현상의 하나로 해석한 바 있다. 이밖에 임규홍(2000), 권순희(2001), 박동근(2002), 이정복(2002), 한동완(2003) 등을 참조할 수 있다. 그리고 통신언어에 대한 그 동안의 연구 경향에 대한 자세한 정리는 이정복(2003)을 참조할 수 있다. 이정복(2003)은 통신언어에 대한 그 동안의 연구를 ‘규범적 연구, 기술적 연구, 사회언어학적 연구’로 분류하였다.
 - 3) 통신언어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다룬 논의로는 권연진(2002)를 참조할 수

언어를 다룬 경우로 대별된다.⁴⁾ 그런데 통신 언어에 대한 사회 일반의 태도는 통신언어가 국어를 오염시키는, 그래서 순화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 특히 신문이나 TV와 같은 대중매체에서 더욱 그렇다. 통신언어의 특성, 통신어의 실태, 통신언어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사실 더 이상 새롭게 추가할 것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본고에서 이를 다시 재론할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는다. 본고에서는 다만 통신언어의 위상에 대한 기왕의 평가가 과연 적당한가 하는 비판적 시각에서 기왕에 지적된 통신언어의 문제점을 냉정하게 재평가해 보고, 통신언어의 위상을 재정립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통신언어가 정말 국어를 오염시키는 심각한 주범이고, 그래서 국어 정책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순화가 필요한 언어인가? 언어란 사회적 약속의 산물이다. 이때 사회의 크기는 크게는 한 국가나 민족에서 작게는 소수의 특수 집단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한 국가 내에서 지역간의 언어적 차이를 지역방언이라고 하고, 사회 계층간의 언어적 차이를 사회방언이라고 한다.⁵⁾ 통신언어는 주로 10대나 20대를 중심으로 한 특정 세대에서 집중적으로 통용된다는 특성이 있다.⁶⁾ 이러한 특성으로 볼 때 통신언어를 굳이 국어학적으로 규정하자면 세대에 따른 사회방언의 한 하위 변종어 정도라고 할 수 있을 듯하다.

표준어 교육이 표준어가 아닌 여타의 방언 — 지역방언이든 사회방

있다.

- 4) 서유경(2002), 허재영(2003) 줄고(2005) 등을 참조할 수 있다. 이밖에 교육 대학원에서 통신언어를 다룬 석사학위 논문들이 많이 나왔는데, 여기서 일일이 거론하지는 않는다.
- 5) 일반적으로 사회방언을 가르는 지표로는 나이, 성별, 학력, 직업 등이 있다.
- 6) 컴퓨터와 휴대폰이라는 동일한 매체를 이용하더라도 30대, 40대의 경우에는 10대와 20대와 달리 통신언어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 비율이 현격히 떨어진다.

언어든 — 을 배척하고 사용을 금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 표준어 교육은 표준어 교육대로 이루어져야 하며, 방언은 방언대로 보존되어야 하는, 그래서 표준어와 방언은 공존해야 할 대상이다. 이때의 방언은 지역방언뿐만 아니라 사회방언도 포함한다. 그런데 유독 통신언어에 대해서만큼은 국어를 오염시키는 問題語로서 배척하고 사용을 금해야 한다는 관점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정말 그러한가?

II. 통신언어의 언어적 성격

넓은 의미의 통신언어는 통신상에서 의사소통을 위해 통용되는 언어를 통칭할 수 있기 때문에 일상의 문어도 포함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통신언어라고 할 때는 기존하는 문어와 차이가 나는 부분만을 지칭하는 좁은 개념으로 사용해 왔다. 본고 역시 통신언어라고 할 때는 좁은 개념으로서의 통신언어를 말한다. 다만 통신언어가 문자를 이용해 의사소통을 하지만 구어적인 성격도 강하다고 보아 문어뿐만 아니라 구어도 포함하여 통신상에 사용되는 언어 가운데서 일상의 문어나 구어와 차이가 나는 부분, 그리고 여기에 이모티콘과 같은 기호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것으로 통신언어를 정의한다.⁷⁾

7) 박동근(2002:6)에서는 넓은 의미의 통신언어는 “의사소통을 위해서 통신상에서 사용되는 모든 문자언어”, 좁은 의미의 통신언어는 “의사소통을 위해 통신상에서 사용되는 문자언어로, 일반 언어의 표기 또는 음운적 변이형이나 통신상에서 만들어진 새말, 통신상에서 새롭게 의미가 부여된 말, 또는 통신상의 독특한 문체나 어법, 의사 전달을 위해 사용되는 특수한 기호를 포괄하는 것으로 최소한 정형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정복(2003)에서도 “전자 통신에서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하는 모든 종류의 글자 언어”로 정의하였다. 박동근(2002), 이정복(2003)은 기본적인

통신언어가 비록 일상의 문어나 구어와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일상의 생활에서 사용하는 문어와 구어를 바탕으로 변용이 일어난 것들이다. 물론 일상의 문어나 구어에서 사용되지 않는 어휘나 특이한 표기, 다양한 이모티콘이나 기호가 문자와 함께 병용되어 의사소통을 한다는 점에서 문어나 구어와 일정 정도 차이는 있다. 이러한 차이가 통신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처음 통신언어를 접했을 때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의사소통 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으며, 조금 익숙해지면 비교적 쉽게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어쨌든 국어의 한 하위 언어라고 할 수 있다.⁸⁾

일반적으로 언급되었듯이 통신언어는 10대나 20대를 중심으로 한 특정 세대에서 주로 통용되는 특성이 있다. 동일하게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사용하지만 세대를 달리하여 30대, 40대에서는 비록 개인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통신언어의 사용 비율은 현격히 떨어진다. 이들의 경우 통신언어를 몰라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통신언어를 알고는 있지만 사용을 하지 않거나 또는 대상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세대에 따라 통신언어의 사용 비율은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이는 통신언어를 사용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으로 통신언어를 문자언어 즉 문어로 보고 있는데, 아래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엄밀히 말해 통신언어는 오히려 구어에 가까운 성격을 띠고 있다.

- 8) 물론 흔히 외계어라고 불리는 것들도 있지만, 전체 통신언어의 측면에서 보면 그 사용 범위나 빈도가 극히 제한적이고 사용 기간도 지극히 짧기 때문에 무시해도 될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외계어를 통해 통신언어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하는데, 이는 그야말로 특수 사례를 일반화하는 오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III에서 다시 언급하겠다.

(1) 통신언어를 사용하는 이유

- ① 재미있어서, 재미있고 특이하니까, 재미있게 하려고
- ② 버릇이 되어서, 습관이 되어서
- ③ 편해서, 간단해서
- ④ 다른 사람이 쓰니까

(1)은 대구 소재 초등학교 4~6학년 297명을 대상으로 통신언어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가장 많은 답변이 나온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다.⁹⁾ (1)에서 보듯이 통신언어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재미를 추구하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편의성·경제성, 유대성의 순이다.¹⁰⁾

그런데 현 시점에서 10대가 주로 사용하는 통신언어와 20대가 주로 사용하는 통신언어가 다르며, 20대에서 30대, 40대로 가면 통신언어의 사용 비율은 현격히 떨어진다. 이러한 경향성이 나타나게 되는 이유는 일반적인 사회화 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 10대에서 20대, 20대에서 30대로 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말과 행동에도 변화가 생긴다. 또한 기성 문화에 대한 반항에서 점차 기성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일련의 변화 과정을 겪는다. 10대에서 하던 행동이나 말을 20대, 30대가 넘어서까지 할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통신언어의 사용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인구가 2500만이 넘었다고는 하지만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네티즌들이 통신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통신언어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인구 가운데서 주로 10대나 20대를 중심으로 한 네티즌들 사이에서 집중적으로 통

9) 이 조사는 2002년도에 영남대학교 사범대학 유아교육과 이현진 교수팀에서 실시한 것이다. 자료를 제공해 주신 이현진 교수께 감사드린다.

10) 이정복(2002:245)에서는 통신언어의 발생 동기 및 기능으로 1차적으로는 경제성과 표현성, 2차적으로는 오락성, 유대성, 일탈성을 제시하였다. 1차적 동기 및 기능은 발생 초기에, 2차적 동기 및 기능은 보급·확대에 관여한 것으로 보았다.

용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외계어라고 불리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일상의 문어를 바탕으로 하면서 한글맞춤법에서 이탈된 변종 표기형이나, 표준어 및 방언 또는 이들의 변종어들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10대나 20대를 중심으로 한 특정 세대에서 통용된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상의 사실들을 통해서 볼 때 통신언어는 세대에 따른 사회방언의 한 하위 변종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특수한 일부 경우를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통신언어라는 것이 통신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접했을 때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질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통신언어를 마치 별종의 언어처럼 취급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하겠다. 물론 의사소통이 어려운 어휘나 표현들도 분명 있다. 하지만 어떠한 지역방언이나 사회방언이든 동일 언어 집단 내에 있지 않은 사람이 접했을 때 의미 파악이 어려운 단어나 표현이 존재하는 것처럼 통신언어에 대한 세대간 이질성의 정도도 지역방언간, 사회방언간의 이질성 이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신언어는 일종의 사회방언의 하나이다. 그렇다면 사회방언으로서의 통신언어의 언어적 성격은 어떠한가? 통신언어는 컴퓨터 자판(또는 휴대폰의 숫자판)을 통해 문자 — 이모티콘과 기호를 문자와 함께 사용하긴 하지만 주된 수단은 문자이다 — 로 의사소통을 한다는 점에서 문어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문자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긴 하지만 인터넷을 매개로 한 대화 상황에서는 일상의 구어와 마찬가지로 대화의 상대방과 실시간으로 의사소통을 한다.¹¹⁾ 또한 현실 공간은 서로 다르지만 인터넷이라는 가상 공간에서 마주보고 이야기를 한다는 점에서 구어적인 성격이 더 강하다고 할 수

11) 휴대폰의 문자메시지 역시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확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10대나 20대들의 경우에는 대화를 하듯이 문자메시지를 실시간으로 주고 받으면서 의사소통하는 경우가 많다.

있다.¹²⁾

- (2) 가. 암꺼뚜 안 한다.
 나. 내용이 저그니까 용서하시구 일겨주세요
 다. 도장 콕 찌겨주세요요.
 리. 그러케 하겠씀다.
 마. 그러케 할꺼시지
 바. 어소세요
 사. 살앙하고파잉~
 오. 모르게떠요, 까묵엇어.

(2)는 통신언어에서 나타나는 일상적인 표기 방식이다. 여기에는 흔히 지적되어 왔듯이 연음, 축약, 불완전한 종결, 첨가, 과잉분철이 보이며, 방언 어휘도 나타난다. 그런데 (2)는 표기법을 의식한 표기라기보다는 구어를 단지 한글 자모를 이용하여 소리나는 대로 옮긴 것뿐이다. 표기법으로 굳이 말하자면 연철 표기에 가깝지만, 첨가나 과잉분철 등의 현상도 나타나기 때문에 단순히 연철 표기라고 할 수만도 없다. (2)와 같은 표기 양상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의 말을 소리나는 대로 한글 자모를 이용하여 옮기기 때문이다. 즉 ‘살앙하고파잉’, 모르게떠요’처럼 감정 상태에 따른 말의 차이를 그대로 문자로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표기법 자체가 크게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한글맞춤법과는 괴리된 다양한 표기 형식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물론 통신언어라고 할 때는 대화 상황에서 통용되는 언어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메일이나 인터넷 게시판, 문자메시지 등 非對話 상황에서 사용되는 언어도 포함한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대화 상황에서 사용되던 언어들이 비대화 상황으로 확장되어 사용되는 양상을

12) 본고에서 제시된 자료는 필자가 직접 조사, 확인한 것을 바탕으로 기왕에 소개된 자료들도 함께 참고하였다.

어가 구어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특징적인 양상이라고 하겠다. ‘푸 흥 ㅏ 흥 ㅏ’ 나 ‘ㅇㅣㅂㅂㅂㅂㅂㅂㅂㅂㅂㅂ’는 분명 ‘푸하하’, ‘이빠서’를 통해서 전달할 수 없는 감정이나 느낌을 표현하고 있다. 일상의 문어라면 ‘푸 흥 ㅏ 흥 ㅏ’ 나 ‘ㅇㅣㅂㅂㅂㅂㅂㅂㅂㅂㅂㅂ’에 내포된 이러한 감정이나 느낌을 문장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통신언어 가운데는 구어와는 무관한, 다시 말해 구어로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예들도 동시에 존재한다. 이러한 예들은 음성적 실현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들로서, 주로 이모티콘이나 기호를 이용을 표현들이 많지만 모음 또는 자음만으로 이루진 것들도 있다.

- (4) ㄱ. 0.0(놀란 눈), :-)(웃는 모습), :-*(키스), ^0^(즐거움), -.-zzZZ
(쿨쿨), ^~(윙크)
ㄴ. ㅇㅋ(오케이), 츄츄츄츄(축하축하), ㄴㄷㄴㄷ(나도나도), ㅍㅍ(우우)

(4)는 구어와는 거의 관계가 없으며, 실제 구어에서 실현될 가능성도 없는 특성을 가진 것들이다. (4ㄴ)은 자판의 타수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가운데 하나인데, 통신언어가 컴퓨터의 자판을 두드려서 표현되는 특성으로 인해 결과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4ㄱ)인데, (4ㄱ) 역시 실시간 쌍방향 소통성이라는 인터넷의 특성과 관련되어 있는 예들이다. 즉 (4ㄱ)은 (3)과 평행하게 공간적으로는 실제 마주보고 대화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시간대에 인터넷이라는 동일한 공간에서 대화를 하기 때문에 문어와 달리 실제 대화 상황에서 표현되는 비언어적 표현이나 반언어적 표현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욕구를 표현한 것이다. (4ㄱ) 역시 기본적으로 통신언어가 구어에 가깝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Ⅲ. 과장된 통신언어의 문제점

앞서 언급했듯이 지금까지 통신언어를 다룬 많은 논의들은 국어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였든 순화론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였든 대부분의 경우 기본적인 시각은 일상의 문어나 구어와의 차이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¹⁵⁾ 물론 통신언어라는 별도의 이름이 붙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존하는 언어와는 분명 차이점이 있긴 있다. 하지만 그 차이점이라는 것은 지역방언간 또는 사회방언간의 차이 이상의 특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시 말해 Ⅱ에서 언급했듯이 국어라는 큰 틀에서 볼 때 통신언어 역시 하나의 사회방언일 뿐이며, 일부 논문에서 또는 여러 언론매체에서 순화론적 관점에서 요란하게 떠들 만큼 별종의 언어는 아니다.

본고 역시 국어 교육이나 국어 정책적인 측면에서 볼 때 통신언어가 올바른 국어 생활을 저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비표준어 및 은어적인 성격의 신조어 남발, 한글맞춤법을 무시한 다양한 표기 형태 등은 표준어 교육 및 한글맞춤법 교육에 분명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고 역시 이러한 사실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이 통신언어로 인해 야기되는 것인지, 아니면 표준어 및 한글맞춤법 교육의 부실에서 야기된 것인지를 좀 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자는 것이다.

흔히 통신언어가 문제라고 할 때는 통신언어가 구어든 문어든 일상 언어의 질서를 무너뜨리거나 일상의 언어를 오염시킬 수 있다는 사실

15) 물론 공통점에 초점을 맞춘 논의들도 없지는 않았지만 매우 드물었다고 하겠다. 공통점에 초점을 맞춘 논의로는 김성규(2003)을 들 수 있다. 김성규(2003)에서는 통신언어를 표기법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여 통신언어의 표기법이 형태소를 고정시켜 표기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밝혀 내고, 근대국어와 개화기 국어와의 비교를 통해 통신언어 표기법이 앞선 표기와는 전혀 무관한, 특이한 것이 아님을 논증하였다.

에 주목하는 것이다. 만일 통신언어가 일상의 구어나 문어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이러한 지적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는 역으로 말하면 통신언어의 특성 가운데 일상의 언어 생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희박한 부분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문제삼을 필요는 없음을 말해 준다. 그것은 그야말로 사회방언으로서의 통신언어가 갖는 특성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음성적인 실현 가능성이 없는 (4)와 같은 경우는 현실의 구어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적어도 구어의 측면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일상의 문어에 자주 쓰여 문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일상의 문어에 (4)와 같은 예들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것이 일상의 문자 생활에 혼란을 야기한다거나 문어적 질서를 깨뜨린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4)와 같은 예들은 문자와는 별개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특히 (4ㄱ)과 같은 예들은 도상적(icon)인 성격을 가진 것들로서 문자 생활의 질서와는 완전히 별개의 존재다. (4ㄱ)은 문자로 표현하는 것에 더하여 느낌이나 감정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부가적인 의미 전달의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통신언어의 문제점을 얘기할 때 일상의 구어나 문어의 질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4)와 같은 예들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통신언어의 문제점으로 흔히 지적되는 예들 가운데 소위 외계어로 불리는 것들이 있다. 이들의 경우에는 특히 언론매체에서도 한글 파괴라는 관점에서 한글날을 즈음해서 단골로 소개되는 것들이다.

- (5) ㄱ. 더희가㊸현글을쓰능뉘다들익얼외계언어樂호하더군효글힘더희능
외계인입니깅?(저희가 이런 글을 쓰는데 다들 이걸 외계언어라고 하더군요. 그럼 저희는 외계인입니까?)
나. 오1ㄱ=IIㄱ1 날음뉘르 ㄱ11성01있뉘홍)외계어두 나름대로 개성이 있다고)
다. 울희능, 너누-ㅎr그 놀기 시1리iii(우리는 너네하고 놀기 싫어)

리. 울ㅎ1꺽회능 한글회함!!!(우리끼리는 한글이야)

(5)는 그 자체로 발화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들이 현실의 구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다.¹⁶⁾ (5)처럼 일단 나타난 외계어들을 놓고 보면 그것은 분명 한글 파괴라고 할 만큼 그 자체로 해독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언어가 사회적 약속이라는 사실을 상기할 때, 이러한 외계어들이 사회적 약속을 획득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외계어의 사용 목적 자체가 재미나 일탈 추구라는 동기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된 형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그때마다 새롭게 만들어지고 또 변형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외계어는 특정 개인과 개인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개인과 개인을 넘어 사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외계어의 사용이 현실의 문어적 질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 이러한 외계어가 인터넷이라는 공간에 나타난다고 해서 이를 마치 사회적 약속으로서의 언어와 평행한 관점에서 문제 삼는 것은 특수 사례를 일반화하는 전형적인 오류이다. 모든 개인이 개인의 방언을 가지고 있듯이 특정 개인간에 나타나는 외계어의 사용도 개인 방언 이상의 것으로 확대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현실 언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외계어를 대상으로 통신언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특수 사례를 갖고 일반화하는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할 것이다.

16) 한동완(2003)은 통신언어를 음성 언어에 유연적인 것과 음성 언어에 무연적인 것으로 나누어 고찰한 바 있다. 외계어나 특수 기호, 이모티콘과 같은 것들이 음성 언어에 무연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음성 언어에 무연적인 통신언어들은 그 특성상 발화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구어에는 별 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3.1. 한글맞춤법과 통신언어

사실 통신언어의 문제점이라고 지적되어 온 것들 가운데는 냉정하게 들여다 보면 관점에 따라 문제가 아닌 것들이 많다. 관점에 따라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은 기왕의 통신언어의 문제로 지적되어 온 것들이 한글맞춤법이나 표준어 등 지나치게 국어정책적인 입장에서 얘기되었던 경향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통신언어의 문제점이라고 지적되어 온 것들 가운데는 일부는 통신언어의 문제점이 이 아니라 인터넷이라는 매체 공간의 문제점인 경우도 있다.

- (6) ㄱ. 여성 비하
 - ㄴ. 성 폭력
 - ㄷ. 언어 폭력/욕설 등 비속어의 남발
 - ㄹ. 거짓말 난무

(6)은 통신언어의 문제점으로 흔히 지적되어 온 것들 가운데 하나이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 보면 그것은 통신언어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의 익명성에 의해 결과된 문제이다. 즉 통신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언어 사용상의 문제이고, 이러한 언어 사용상의 문제가 야기되는 것은 인터넷이라는 공간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지 통신언어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다. 사실 (6)은 일상의 언어 생활에서도 나타나는 문제이다. 이를 통신언어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일상의 언어 생활의 문제를 모두 통신언어의 그것으로 잘못을 전가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6)을 통신언어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물론 통신언어에서 이러한 특성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는 있겠으나, 그것 역시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지 통신언어 자체의 특성은 아니다. 이는 일상의 언어 사용이 순화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통신언어의 문제점이라고 할 때는 매체적 특성과는 분리된 순수히 언어적 측면으로 제한하여 얘기할 필요가 있다. 통신언어가 일상의 문어적 질서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은 결국 (7)로 제한된다.

- (7) ㄱ. 의사 소통에 장애
 - ㄴ. 한글맞춤법 파괴
 - ㄷ. 문법 파괴
 - ㄹ. 비표준어 및 은어적 성격의 신조어 남발

통신언어의 한글맞춤법 파괴나 문법 파괴는 결국 의사소통의 장애를 야기하게 되며, 통신언어가 의사소통의 장애를 일으킨다고 할 때 그 원인은 다시 한글맞춤법 파괴와 문법 파괴와 같은 양상 때문이다. 예컨대 ‘섭(수업), 존(좋은)’ 등과 같은 지나친 축약, ‘했닥(했다), 가욏(가요)’와 같은 불필요한 삽입, ‘넘호(너무), 앵억을인(에버그린)’과 같은 과도한 끊어적기처럼 한글맞춤법을 어기는 표기나 뽻(엄하다), 즐(혼자 잘 놀아라)’과 같은 신조어의 남용 등은 분명 통신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서는 의사소통의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런데 II에서도 언급했듯이 통신언어를 사용하는 세대는 10~20대로 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들의 경우에는 통신언어가 특별히 의사소통의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 통신언어로 인해 의사소통의 장애를 겪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통신언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이다. 이러한 상황은 동일 방언권 화자가 아닌 사람이 해당 방언 화자들과 이야기할 때 의사소통의 장애를 겪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통신언어를 알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알 필요가 없는 경우도 많다. 그런 사람들이 통신언어를 잘 몰라 의사소통의 장애를 겪는다고 통신언어가 문제라고 한다면, 방언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방언을 몰라 의사소통의 장애를 겪기 때문에 방언이 문제라고 하는 것과 평행하다.

- (8) ㄱ. 언니얌~ 홈페이지취~님 이뿌닷... (언니야 홈페이지 너무 예쁘다.)
- ㄴ. 강 담에 보는게 어떨까요?? 월욜쫌..??(그냥 다음에 보는 게 어떨까요? 월요일쫌.)
- ㄷ. 언냐 부디 꺼억~~ 성경하시길 바래엄 그람 건투를!!!!(언니야 부디 꼭 성공하시길 바래요. 그럼 건투를.)
- ㄹ. 벌은 셴이 넘 많아서 안될꺼 같구요//(내일은 수업이 너무 많아서 안될 것 같고요.)
- ㅁ. 글쎄요, 저 설 살아여(그렇군요, 저 서울 살아요.)
- ㅂ. 잘 아라씨여(잘 알았어요.)
- ㅅ. 지수니미 다 채김져웃!!!!(지수님이 다 책임져요.)
- ㅇ. 죠은 하루 되세염(좋은 하루 되세요.)

(8)과 같은 통신언어는 통신언어를 처음 접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익숙해질 때까지 한 동안 의사소통에 곤혹스러움을 느낄 수 있다. 그런데 다음의 경우를 살펴보자.

- (9) 가) “참말로오. 학생복을 입어 뇌서 못 알아봤그만 그리여. 신랑이 왜 사모관대는 안했시까아?”
 “머언 기차속으서꼬장 그러고 온당가? 인자 갈어입을 티지.”
 “저건 누구대? 저 각시가 신부여? 저 노랑 저구리 빨경 치매가?”
- 나) “핫다나, 어지간히도 바쁜가배.”
 “빨리 꼬빠기로 한 사발 달라니까구마.”
 “오늘은 와 이카노?”
- 다) 땅 소꿌에 가른 삼년도 안 가. 소낭만 못허여. 뽕낭도 석지 안행 좋지. 뽕낭도 오래 가곡 또 석어가른 게 슬이 노오랑허곡. 허뵈 뽕낭이 굴목이, 노가리만 못해. 그 다음은 무신 벨로 웃지. 그 다음은 개판허는 낭이 읍서.

(9가)는 최명희의 『혼불』(1권 197쪽), (9나)는 하근찬의 『수난이대』에

나타난 방언 표기이고, (9다)는 『민중자서전』 14(뿌리깊은나무)의 제주 중산간 농부 김승윤의 한평생의 구술 기록이다. (9가)는 전라도방언, (9나)는 경상도방언, (9다)는 제주도방언을 한글 자모를 이용하여 소리대로 적은 표기이다. 통신언어를 잘 모르는 사람이 (8)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과 평행하게 방언을 모르는 화자가 (9)를 이해하기는 어렵다. 해당 지역 방언을 모르는 화자가 (9)를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소리대로 적는 표기법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과 방언 어휘가 많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통신언어를 모르는 사람이 (8)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8)이 비표준어가 많고 소리대로 적는 표기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문학 작품 속에 쓰인 방언 어휘나 방언의 표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는다. 의사 소통의 장애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8)이나 (9)가 다른 차원의 문제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문학 작품에 나타난 한글맞춤법의 일탈형에 대해서는 통신언어와 평행한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을까? 그것은 문학 작품이라는 특성, 그리고 방언의 국어학적·문화적 가치 때문에 통신언어에 비해 비교적 관대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한글맞춤법의 파괴에 따른 의사소통의 장애라는 문제는 (8)과 (9)가 별반 다르지 않다.

통신언어에서의 한글맞춤법 파괴 및 문법 파괴는 분명 규범적인 관점에서 그 자체만을 놓고 보면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통신이라는 매체를 벗어난 일상의 문어에서 이러한 통신언어가 그대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굳이 문제 자체를 확대 과장할 필요는 없다. 대부분의 경우 통신언어는 통신 매체 내에서 통용되며, 일상의 문어에서 사용될 때도 그 대상이 통신언어로 의사소통이 상호 가능한 사람끼리로 제한적이다. 물론 통신언어에서 사용되는 언어나 문체가 통신언어를 잘 알지 못하는 대상에게로 확대되는 경우도 없지는 않다. 하지만 확대되는 정도를 분석해 보면 ‘나두, 하구요, 되세여/되세엄’처럼 대체로 어미류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한글맞춤법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용한다기보다는 일종의 친

근감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¹⁷⁾ 이러한 사실은 통신언어를 사용하는 계층이 그 사용 대상과 공간을 스스로 구분하여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실제 그렇게 사용하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통신언어의 한글맞춤법 파괴 및 문법 파괴 현상을 통해 현실의 문어적 규범이 심각하게 파괴된다는 시각은 현상의 본질보다는 통신언어를 모르는 세대의 통신언어 자체에 대한 반감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이는 실제 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초등학교 297명을 상대로 ‘채팅에서 사용하는 말 때문에 국어 시험을 잘못 봤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가’를 물은 결과이다!¹⁸⁾

(10) 국어시험에 대한 영향⁹⁾

17) 낯설거나 어려운 관계에서는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축약의 경우에도 예컨대 ‘선생님’과 ‘ 쌤’의 경우 실제 학생들에게 물어보았을 때 보다 친근감을 느낄 때 ‘ 쌤’이라고 하며, 어렵게 느낄 때는 ‘선생님’이라고 한다고 대답하였다.

18) 이 통계 자료의 조사 및 출처는 앞서 각주9)에서 언급하였으므로, 각주9) 참조. 참고로 채팅 경험을 묻은 설문에 대한 통계는 아래와 같다.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전혀 하지 않음	75	25.3	25.3	25.3
한 달에 2,3번	99	33.3	33.3	58.6
주당 1,2번	78	26.3	26.3	84.8
매일	45	15.2	15.2	100.0
합계	297	100.0	100.0	

19) 이 조사 결과는 경상북도 소재 초등학교 4학년생 99명, 5학년생 100명, 6학년생 98명 총 297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남학생은 145명, 여학생은 152명이다.

			학년			전체
			4.00	5.00	6.00	
국어 시험 영향	있다	빈도 학년의 %	2 3.7%	3 3.6%	8 9.5%	13 5.9%
	없다	빈도 학년의 %	51 94.4%	81 96.4%	76 90.5%	208 93.7%
	3.00	빈도 학년의 %	1 1.9%			1 0.5%
전체		빈도 학년의 %	54 100.0%	84 100.0%	84 100.0%	222 100.0%

(10)에서 보면 국어 시험에서 통신언어가 별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초등학생의 경우에도 통신언어를 사용하는 상황과 통신언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상황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중·고등학생, 대학생으로 갈수록 초등학생에 비해 통신언어를 일상의 구어나 문어와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은 향상된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할 때 통신언어가 일상의 문어적 질서를 위협한다는 것은 문제를 최소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겠다.

물론 지나친 통신언어의 사용은 실제 한글맞춤법이나 표준어 사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통신언어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한글맞춤법 교육이나 표준어 교육의 잘못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언중들이 통신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과 대상을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통신언어 자체를 크게 문제 삼을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사실 문제는 제대로 된 한글맞춤법 교육이나 표준어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있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진단일 것이다.

통신언어와 관련하여 한글맞춤법이나 표준어 등 국어정책적인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되어 온 것들도 사실 현실을 들여다 보면 그렇게 우려할 만한 일은 아닌 듯하다. 국어정책적이 차원에서 표준어를 보급하고, 한글맞춤법 교육을 실시하는 것과 일상의 생활에서 개개

인이 개인의 방언을 사용하는 것은 서로 배타적인 차원의 문제일 수는 없다. 표준어 정책은 국민통합이나 언어 순화의 순기능이 있다. 그렇지만 표준어 정책이 지나치게 강력할 경우 살아있는 언어의 말살을 야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표준어 교육은 표준어를 구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표준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지, 방언을 버리고 표준어만을 사용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 방언은 방언대로 사용하면서 표준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이중 언어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올바른 표준어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한글맞춤법 역시 평행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글맞춤법 제1장 제1항에서 “한글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에서 알 수 있듯이 한글맞춤법의 대상 언어는 표준어로 규정되어 있다. 달리 말하면 방언의 경우에는 마땅한 표기 규범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을 적을 때는 한글맞춤법에 준하여 표기하기도 하고, 소리대로 적는 표기를 하기도 하고, 양자를 섞어 표기하기도 한다. 앞서 통신언어가 사회방언의 하나라고 하였는데, 통신언어의 표기 양태가 주로 소리대로 적는 표기를 취하고 있는 사실은 이러한 관점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통신언어가 표준어가 아니고, 또한 통신언어를 사용하는 상황이 표준어를 구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통신언어를 규범적인 관점에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일상의 개인 언어 생활에 표준어를 강요하는 것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글맞춤법 역시 표준어와 마찬가지로 한글맞춤법에 맞게 써야 하는 상황에서 한글맞춤법에 맞게 쓸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는 것이 목표이지, 개인의 모든 문자 생활에서조차 모두 한글맞춤법에 맞는 표기를 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될 수는 없다. 개인의 언어 생활에서 방언을 사용할 수 있듯이 개인의 문자생활에서도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변용은 허용될 수 있어야 한다.

통신언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일종의 사회방언으로서 그 나름대로의 특성과 기능을 갖고 있다. 이를 규범적인 관점에서 지나치게 억압

하는 것은 그러한 사회방언을 사용하는 화자들의 개인 언어 생활을 통제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통신언어에 대한 시각이 달라질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3.2. 일상의 구어와 통신언어

통신언어의 문제점을 얘기할 때 한글맞춤법과 같은 문자 생활의 혼란 외에 통신언어가 일상의 구어로 확장되어 쓰이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언어 순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통신언어가 올바른 언어나 아름다운 말이 아님은 분명하다. 특정 세대에서 주로 통용되는 세대에 따른 사회방언인 통신언어가 구어로 확장되어 쓰일 경우 통신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세대에게는 분명 낮은 언어이다. 따라서 통신언어가 일상의 구어로 확장되어 그대로 사용될 경우 의사소통의 장애는 물론이고 바른 언어 생활이란 측면에서 분명 문제를 야기한다. 통신언어가 비록 통신상에 사용되는 언어라 하더라도 그것을 사용하는 주체가 현실의 언중이기 때문에 통신언어가 현실 언어로 확대될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통신언어의 문제라고 지적되는 것들의 상당 부분은 앞서 (2)에서 살펴본 것처럼 구어에서 실제 사용되는 발음형들을 그대로 문자로 옮겨 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 (10)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경우는 실제 현실 발화에서 사용되는 음성형들이다.

- (10) ㄱ. 안나세요, 어좌요, 어소세요(어서 오세요), 드더(드디어), 강(그냥→그양→강), 글쿠나(그렇구나), 켈로(제일로), 켜(게임), 쌤(선생님)
 ㄴ. 마세용(마세요), 열띠미 하겠습니닷, 찌겨주세요오

엄밀히 말하면 (2)나 (10)은 통신언어의 특성이라기보다는 실제 발화

상에서 통용되는 음성형들의 특징이다. 즉 실제하는 음성형이 다만 통신상에서 한글 자모를 빌어 표기된 것 뿐이다. (10)에서 주로 나타나는 축약이나 탈락은 발화의 경제성과 관련하여 현실 언어에 원래부터 존재하던 음운 변동의 기제이므로 이를 특별히 문제라고 할 것까지는 없다. 물론 과도한 축약이나 탈락형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탈락과 축약의 정도가 현실 언어의 그것을 넘지 않는 정도의 것들만이 오랜 기간 존속되며, 현실 언어의 정도를 넘어서는 것들은 비교적 단명하거나 변형 재생산의 과정을 겪는다. (2), (10)과 같은 유형은 기본적으로 구어와 이를 표기하는 표기법이 일치하지 않는 속성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지, 통신언어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2), (10)이 일상의 구어에 나타나는 것을 통신언어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선후가 뒤바뀐 얘기이며, 통신언어 자체의 특성이 아니라 원래부터 구어에 존재하던 기제가 통신언어상에 반영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통신언어가 일상의 구어에 확장되어 사용되는 경우도 물론 있다. 특히 통신상에서 만들어진 신조어들이 그것이다.

- (11) 하이루, 아햏햏, 즐팅, 눈칭(눈으로만 하는 채팅), 야리까다(담배 피다), 깔삼하다(멋져 보이다)

그러나 이들의 경우에도 일상의 구어에서 사용되는 어휘와 달리 그 존속 기간이 매우 짧다. 이러한 말들이 잠시 유행어로서 현실의 구어에 사용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국어를 오염시킨다고 하기는 어렵다. 유행은 유행이 지나고 나면 사그라지기 때문이다. 이들은 사전에 등재되기도 전에 사라져 버리거나 그 쓰임이 축소되기 때문에 현실의 구어에 영향을 미치는 절대 폭은 그리 넓다고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구어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라는 것은 오히려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11)과 같은 어휘들이 통신 상

에서 끊임없이 양산되어 사용되긴 하지만 이들의 존속 기간이 길지 않다. 이러한 일탈형이나 신조어는 (12)에서 보듯이 끊임없이 변형 재생산되며, 오랜 기간 정체되어 있기를 거부한다. 이러한 이유는 통신언어를 사용하는 주된 계층이 기존 질서로부터의 일탈과 정체를 거부하는 속성을 갖고 있는 데서 찾을 수 있다.

(12) ㄱ. 아헿헿, 아헿헿, 아헿헿, 아헿헿

ㄴ. 하이, 하잇, 하이룸(룽), 하이딩, 하이엄, 하하하하이, 하2, 하룽, 하이루, 하루, 할룽, 하렁

ㄷ. 방가, 방가 방가, 방가브용, 방가워, 방가루

ㄹ. 안냐하셈, 안농, 안능, 안눔, 안냐세효, 안녕하셈, 앓냥, 안녕하세염, 안냐셈, 안냐하세용, 안냐세여, 안농, 안눔

이처럼 통신언어는 인터넷의 변화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변형되며 사라지고 또 새롭게 생겨나는 일을 반복한다. 따라서 설령 통신언어가 현실의 구어로 확대되어 쓰인다 하더라도 짧은 기간 통용되다 사라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실 언어에 영향을 주는 폭은 넓지 않다. 존속 기간이 짧기 때문에 다음 세대의 언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은 당연하고, 한 세대 내의 언어에도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10대가 사용하는 통신언어와 20대가 사용하는 통신언어가 다르고, 20대가 30대가 되었을 때 20대에 사용하던 통신언어를 그대로 사용하지도 않는다. 20대의 생각이 30대, 40대로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30대, 40대가 되면서 既存하는 30대, 40대 문화를 수용하면서 재조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언어 역시 기성 세대의 질서에 편입되면서 기성 세대의 언어에 의해 재조정을 받는다. 따라서 통신언어가 현실 언어에 확장되어 현실 언어의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것은 지나친 기우일 수 있다.

통신언어가 구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점 가운데 은어나 비속어의 사용이 자주 지적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은어나 비속어 역시 일상의 구어적 질서를 어지럽힐 정도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먼저

은어의 경우에는 그 속성상 은어를 이해하는 집단 내에서만 통용될 수밖에 없다. 은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은어를 사용하는 것은 언어의 기본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설령 은어를 알고 있더라도 그것을 사용하느냐 마느냐는 또 다른 문제이다. 은어를 알고 있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은어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통신상에서 기왕에 존재하지 않던 은어들이 꽤 만들어져 사용되고 있으며, 일부는 구어에까지 확장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은어들이 일상의 구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희박하다.

다음으로 비속어의 경우를 살펴보자. 통신상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비속어는 일상의 구어에서 사용되던 비속어이거나 또는 이들의 변종어들이다. 실제 일상의 구어에서 사용되지 않는, 순수히 통신언어상에서 만들어진 비속어는 그 예를 찾기 어렵다. 그럼에도 통신언어에서 사용되는 비속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일상의 구어에서 사용되던 비속어라고 하더라도 통신이라는 매체의 특성상 그러한 비속어의 전과 범위나 속도가 광범위하고 빠르다는 점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비속어의 사용 역시 통신언어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특성에 기인한 것임을 말해 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비속어가 문제가 되는 것은 통신언어의 특성 때문이 아니라 통신언어가 통용되는 매체의 특성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통신언어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통신언어에서 사용되는 비속어 가운데는 ‘웨이(새끼)’, ‘씨바, 띠바(씨팔)’, ‘졸라, 절라(좃나게)’처럼 현실 언어에 존재하는 비속어의 어감을 약화시킨 변종어들이 많다. 이러한 변종어들이 다시 현실 언어로 튀어나오기도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비속어 사용은 결국 현실의 언어 사용에서 언중들의 태도 문제이지 통신언어의 문제라고 할 수는 없다. 어떤 측면에서는 오히려 비속어의 강한 어감을 통신언어가 일정 정도 약화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할 수도

있다.

비속어의 경우에는 언어 사용의 문제이지 통신언어 자체의 문제일 수는 없다. 비속어는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보급되기 이전에도 사용되었고, 언어 사용이나 언어 예절의 측면에서 늘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비속어의 문제를 통신언어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문제의 본질의 전가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다시 말해 비속어의 문제는 통신언어가 안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언어 사용과 관련된 일련의 언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 주는 증거일 뿐이다.

IV.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통신언어는 세대에 따른 사회방언의 하나이다. 사회방언으로서의 통신언어는 기왕의 지역방언이나 사회방언처럼 국어라는 공통성과 함께 나름대로의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통신언어의 특성을 지금까지 순화론적인 관점에서 지나치게 문제시해 온 것이 사실이다. 본고에서는 기왕에 통신언어의 문제점이라고 지적되어 온 것들이 사실은 통신언어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인터넷이라는 통신매체의 특성에 기인한 것임을 밝혔다.

사실 통신언어의 문제점은 지나치게 침소봉대되어 온 측면이 없지 않다. 이러한 시각이 사회 전반에 그대로 반영되어 통신언어가 마치 올바른 국어 생활을 해치는 주범인양 다루어져 왔다. 그렇지만 올바른 국어 생활을 해치는 문제의 본질은 통신언어가 아니라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한글맞춤법, 표준어, 표준 발음 교육 및 언어 예절 교육에 있다. 한글맞춤법, 표준어, 표준 발음, 언어 예절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사실 통신언어가 현실의 언어에서 문제가 될 소지는 별로 없다고 할 수 있다.

통신언어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언중들은 통신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과 공간, 사용해서는 안 되는 대상과 공간을 잘 구분하고 있다. 심지어 초등학생조차도 이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실제 조사 결과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따라서 국어 교육을 통하여 통신언어의 사용 대상과 공간을 더욱 분명하게 구분시켜 주고, 이와 병행하여 한글맞춤법, 표준어, 표준 발음 교육 및 언어 예절 교육을 강화시켜 준다면 통신언어에 의해 현실 언어가 오염되는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통신언어의 문제점이라고 지적되어 온 것들은 사실 통신언어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아니라 한글맞춤법, 표준어 및 표준발음, 언어 예절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증언해 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주제어 : 통신언어(Net lingo), 사회방언(social dialect),
순화 (refinement), 한글맞춤법(Korean orthography),
문어(written language), 구어(spoken language)

참고 문헌

- 구현정(2002), 「통신언어—언어 문화의 포스트모더니즘」, 『國語學』 39, 251-278.
- 권순희(2001), 「컴퓨터 통신 대화의 언어적 특성」, 『국어교육』 105, 한국 국어교육연구회, 143-169.
- 권연진(2000), 「컴퓨터 통신언어의 유형별 실태 및 바람직한 방안」, 『언어과학』 76-2, 한국어언어과학회, 5~27.
- 김성규(2003), 「인터넷 通信의 保守的 表記에 관한 연구」, 『語文研究』 31-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7-31.
- 박동근(2002), 「통신언어의 유형에 따른 언어학적 연구」, 『한말연구』 10, 1-22.

- 서유경(2002), 『인터넷 매체와 국어교육』, 역락.
- 신종희(2002), 「중학생 PC 통신언어의 실태 분석」, 『국어교육연구』 34, 국어교육학회, 107-140.
- 신승용(2005), 「통신언어와 국어교육」, 『영남국어교육』 9(영남대 국어교육과), 12-26.
- 이정복(2000), 『바람직한 통신언어 확립을 위한 기초연구』, 문화관광부 연구보고서.
- 이정복(2002), 「전자편지 언어에 나타난 우리말 변용 현상」, 『사회언어학』 10-1, 225-251.
- 이정복(2003), 『인터넷 통신언어의 이해』, 월인.
- 임규홍(2001), 「컴퓨터 통신언어에 대하여」, 『배말말』 27, 배달말학회, 23-59.
- 韓東完(2003), 「言語媒體的 特性으로 본 인터넷 通信言語」, 『어문연구』 118, 353-375.
- 허재영(2003), 「통신언어와 국어과 교육 — 7차 교육과정의 표현·이해를 중심으로 —」, 『국어교육학연구』, 271-314.
- 교육인적자원부(2001), 『중학교 국어 1-2』,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국어교육연구부(2003), 「통신언어의 변용과 그 지도방안」, 『영남국어교육』 8(영남대 국어교육과).

<Abstract>

The position of Net-lingo as one of the social dialect

Shin, seung-yong

Net lingo is one of the social dialect by a generation. Net lingo have something in common and peculiarity like some of regional dialect or social dialect. We have put a peculiarity of Net lingo to be problematic in aspect of refinement. In this paper, I investigated that problems of Net lingo is caused in not Net lingo in itself but a characteristic of the internet medium. That is to say, Net lingo in itself isn't problematic especially. By this time, they have put the Net lingo into in question in aspect of refinement. But it is nothing but showing that there is a problem in education of Korean orthography, the standard language, standard pronunciation and language etiquette

신승용

경북 경산시 대동 214번지

영남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전화번호: 053-810-3195(연구실), 017-353-3807

e-mail: shinsy0901@empal.com

이 논문은	2005년	4월	30일	투고하여
	2005년	5월	30일까지	심사완료하여
	2005년	6월	30일	간행함